

# “기아챔피언스필드 손익평가위 구성 특혜 의혹 해소”

##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는 10일 광주시 체육 U대회지원국과 환경생태국, 교통건설국,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흘째 이어갔다. 또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증가가 쟁점이 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의 포트홀(pot hole·노면이 생기는 조금 파인 곳) 개선 사업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허술한 환경 안전지도점검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주먹구구식 학교 운동부 창단이 지적됐다.

◇U대회 관련, 지방채 발행 급증=박춘수(새정치·남구 3) 의원은 이날 광주시 체육 U대회 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2011년 1291억, 2012년 1269억으로 감소하다 2013년 1617억(27.4%증가), 2014년 2163억(33.7%증가)으로 큰 폭 증가 했다”면서 “이 가운데 U대회 관련 지방채 발행액은 2012년 40억, 2013년 490억, 2014년 678억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2013년 이후 광주시 지방채 발행 증가율이 평균 30%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연기로 이자를 아끼고, 짧은 기간에 거액의 공사비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기아야구장 운영손익평가위 구성 촉구=조오섭(새정치·북구 2)의원은 “광주시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야구장 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아차(주)와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2013년 4월 광주시는 ‘야구장 수익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기아차(주)와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임대수의 부문의 2년간 운영수지 분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기아차가 야구장의 식당, 상가 등 총 임대면적 5492㎡ 가운데

## U대회 지방채 발행 급증

### 신중한 예산편성 촉구

## 도로위 포트홀 매년 증가

### 조기발견 시스템 도입해야

15.2%인 834㎡만 임대 처리하고 나머지 4658㎡는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광주시는 야구장 상가 임대료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기아차(주)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 위 지리 포트홀 매년 증가=김민중(새정

치·광산 4)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에서 도로 위의 지로발로 불리는 포트홀 발생개소는 지난 2010년 1만3235건, 2011년 1만3050건, 2012년 1만3757건, 2013년 1만4218건이며, 포트홀로 인해 70건, 2430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면서 조기발견 시스템 및 보수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택시 내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드결제기에 내장된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돼 웹 지도에 파손위치, 신고, 접수, 보수 일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수방식도 포트홀 정비 전용차량을 이용하면 1곳에 3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점검 형식적”=전진숙(새정치·북구 4) 의원은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출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시행 5년이 지나도록 광주시의 자치구에서는 중금속 측정을 위한 간이 측정기도 없이 육안검사만으로 엉터리 지도점검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최근 2년간 유해물질이 의심되는 시설 97개소에 대해 환경부에 중금속 간이 측정기에 의한 점검을 의뢰해 97개소 전체 환경기준에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내년 예산에 간이측정기 구입을 위한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경문화체험관 둘러보는 이낙연 지사

이낙연 전남지사가 10일 오후 전남도 농업박물관을 방문해 농경문화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MOU 체결

### 외국기업 실투자 37%

전남도가 지난 2011년 이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업의 투자 실현율이 25%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남도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외국기업은 총 47개 업체로 이 중 12개 업체(25.5%)가 투자를 실현했다.

투자금액으로는 MOU 체결액 6조4688억원 중 2조3852억원(36.8%)이 실현됐다.

투자실현 업체는 지난 2011년 6개사(8460억원), 2012년 2개사(9889억원), 2013년 2개사(5203억원), 올해 2개사(300억원)였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무려 19개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35개 업체 가운데 5개사는 이미 투자를 포기했으며 나머지 30개사에 대해서는 투자 추진중이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 투자실적은 총 984개 업체(18조646억원)와 MOU를 체결해 이 중 45.1%인 444개사(8조1985억)의 투자가 실현됐으며 540개사는 투자 미실현 업체로 남아 있다.

광주시의 외국기업 투자실적은 협약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반재신(새정치·북구 1) 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투자를 희망한 외국기업 36곳 가운데 실투자로 이어진 곳은 10곳(27.7%)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 애초 투자 의향금액 1조1988억원 가운데 실투자는 188억원으로 1.6%에 불과했다. 고용규모는 계획상 1113명이었으나 실고용인원은 10%가량인 119명이었다.

반 의원은 올해는 국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 이 한 건도 없어 투자유치차 외국을 방문한 비용도 견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도로표지판 중국어 표기

전남도는 도로표지판에 중국어를 표기하기로 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주요관광지 연결도로의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중국어 표기 대상 도로표지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지방도 표지판부터 교체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표지판은 해당 관청과 협의해 교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잘못된’ 중국어 표기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중국어 전문가들의 면밀한 자문을 거쳐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도로표지판에 영어와 일어를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백지화 대신 연기?

## 윤장현 시장, 지역 국회의원 만나 불가피론 피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여부를 놓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연기 불가피론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여부를 놓고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윤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건설 백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

난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갑작스럽게 간담회 일정을 잡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장병완·박혜자·김동철 의원 등이 시차를 두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연기 불가피론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의회와 지역 방송에서 이미 밝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상당 시간 활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윤 시장은 “2조원 가량 들어가는 지하철 건설을 위해 광주시가 7000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역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며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합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의원은 “갑작스럽게 만난 자리에서 윤 시장은 재정문제 등을 거론하며 건설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십수년 동안 광주지역내 여론 등을 거쳐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이제와 연기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병완·박혜자 의원은 “윤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지만,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면서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 만큼 재정, 교통전문가 등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말연시 모임·피로연·돌 회갑 등

# 등대바다

(주) 해진수산 (주) 창진수산 전국 유통 직영점!

등대바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062)682-9688 정일영 010-2604-7223

해진수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061)552-7223

창진수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내동리 (061)554-4631

대량 저가 판매 전복 연말 선물 Set

예약 문의 (062)682-9688 ※ 300석 완비, 주차장 완비

성황리 공개중

순천 최초 수역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층정원과 1km내에 위치한 옥상하늘정원

구. 순천민정원(바람화장) 1km내에 위치 (순천민정원 조망권)

무인택배시스템

휠트라스센터

1599-1129

268㎡ 리가안에 주목하라!

29㎡ 33㎡ 35㎡ 52㎡

M/H 홈플러스 풍역점 주차장 뒷편